

세상에 없던 6모션 세탁의 진화

LG 트롬

LG 트롬
Objet Collection



옷감을 이해하는 정교한 맞춤 세탁, 인공지능 세탁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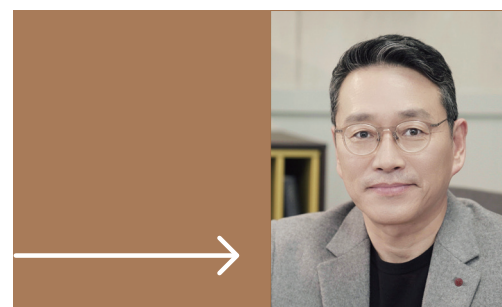
LG 트롬 오브제컬렉션의 세탁 기술은 더욱 진화했다. 인공지능 세탁코스는 세탁기가 딥러닝 기술로 의류의 재질을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탁하면서 발생한 물의 오염도까지 측정한다. 이에 맞춰 LG 트롬만의 6모션 중 최적의 모션을 선택해 세탁한다. 예를 들어 세탁기가 의류를 인식한 후 세탁 중에 오염도를 측정해 필요 시 알아서 세탁과 헹굼을 추가 진행한다. 오염도가 적고 섬세한 의류 재질의 경우 옷감을 보호하는 모션인 흔들기와 주무르기로 섬세하게 세탁하고, 오염이 많은 일반 의류는 강한 세탁모션을 사용하고 세탁 시간을 조절해 맞춤 세탁한다. 또 세탁 및 건조 코스를 선택하는 다이얼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이지 서클 컨트롤'도 갖췄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고객이 제품의 동작상태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체 알림메시지를 제공한다.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하단에 통돌이 세탁기인 미니워시를 결합해 동시세탁과 분리세탁이 가능한 트윈워시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키높이 수납함'은 미니워시와 짝을 맞춰 세탁기·건조기 하단에도 설치할 수 있다. 또 분리할 수 있는 세탁바구니를 갖춰 세탁물을 옮길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전 업계 최초로 글로벌 안전과학회사인 UL로부터 트롬 세탁건조기전에 적용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의 우수성까지 검증받았다.

물을 그대로 끌어 만든 트루스팀 적용,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세제를 투입하는 자동세제함 플러스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세탁기 중에는 트루스팀을 적용한 제품뿐만 아니라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 등을 감지해 적정량의 세제를 자동으로 투입해주는 '자동세제함 플러스' 기능을 적용한 제품도 출시했다. 다양한 LG 가전에 적용되어 차별화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트루스팀 기술은 탈취와 살균에 효과적이다. 자동세제함 플러스는 세제와 섬유유연제 투입 후 자동세제함 주변의 남은 세제를 씻어내는 워터 스프레이도 갖췄다. 세제함의 세제량 센서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되었고 세제가 3~4회분가량 남았을 때 자동차 연료 알림처럼 미리 보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자동세제함의 급수부 표면은 물방울이 잘 맺히지 않도록 발수 처리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LG 트롬은 가전 업계 최초 'UL 딥러닝 AI 검증'까지 획득한 인공지능 기술을 세탁기에 도입하여 옷감을 이해하는 정교한 맞춤 세탁을 하는 인공지능 세탁코스를 적용했다. LG 트롬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의 기기처럼 스마트 페어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사용의 편리함까지 더했다. 또한 LG UP 가전을 통해 새로운 코스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신기능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편리성과 성능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LG전자(株) 사장 조주완

LG전자의 트롬이 13년 연속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를 달성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과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UP 기능 등 끊임없는 제품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세분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